



▲ 에스에프(주)공장 전경

소를 내가족처럼 생각하며 TMR제조...



▲ 정성준 사장

사람이 안심하고 먹어도 괜찮을 사료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에스에프(주).

한걸음에 달려간 그곳은 임직원 모두가 이러한 사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밤낮을 모르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비록 공장은 작아보였지만 무척이나 내실 있고 알차 보이는 현장이었다

충남 천안시 직판읍 판정리에 위치한 에스에프(주)는 이같은 노력으로 거의 대부분이 단골 고객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간에 다른 회사 영업사원들의 설득에 거래처를 잠시 옮긴 경우는 있어도 머지 않아 그 농가는 에스에프를 못잊어 되돌아오곤 한다고 한다. 그



▲ 원료 저장 창고

농가는 영원한 에스에프의 단골고객이 되버리는 셈이다.

정성준 사장은 경영자로서의 일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은 사료회사와 농가가 공존공생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NRC** 사양표준에 의해서 사료 설계를 아무리 잘해서 만든다고 해도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축하는 사람들은 이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사양관리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안심하고 먹어도 괜찮을 사료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양축 농가의 이익증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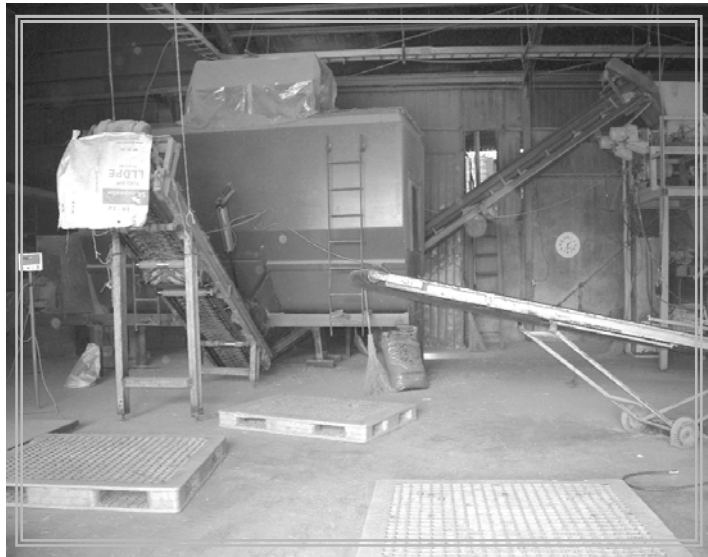
에스에프는 많은 원료를 섞지 않기로 유명하다. 꼭 필요한 원료를 비싸더라도 구매하여 질 좋은 원료만을 엄선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산유량 증대에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농가를 관리하는 영업사원이 있기는 하지만 정성준 사장이 직접 농가를 매일 찾아서 사료도 급여해주고 일일이 젖소들의 건강상태를 보살피고 있다.

올해로 72세인 정성준 사장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사료회사와 낙농육우협회 전무이사를 거치면서 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오래전에 **TMR** 사료를 개발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이론 뿐만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소들의 생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정사장은 배합비를 직접 설계한다. 소들이 건초만 골라먹는 습성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주 짧게 잘라서 소들이 건초만 골라먹지 못하고 다른 사료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믹서를 한다.

지금은 나이 탓으로 일이 힘이 들어 아들



▲ 공장 내부 전경

정근수씨에게 대표이사직을 물려주고 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아직도 매일 현장을 돌며 사료급여는 물론 사양지도까지 해주는 왕성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 사료원료가격 및 운임폭등에 에스에프도 직격탄을 맞고 있었다. “원료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나 인상분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어



▲ 배달물량이 많아 항상 분주하다



▲ 농가로 배달되는 에스에프사료

려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사료회사와 농가가 힘을 합쳐 철저한 농가 관리로 농가의 이익을 증대시켜 공

생공존하는 길이 다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사료회사는 원가절감에 최대한 힘쓰고 농가는 농가대로 생산성 향상과 사료허실을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정성준 사장은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정사장은 직원들의 복지에도 남다르게 관심을 갖고 있다. 10여명의 직원들과 한가족처럼 일하며 직원들의 어려움을 항상 살피고 챙기고 있다. 직원들의 경조사 또한 빠트리지 않고 늘 챙긴다. 정기적인 산행과 회식, 레크레이션 등으로 임직원간의 화합을 다지기도 한다.

“대부분의 TMR업체들은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쉬운 얘기로 관여하는 사람이 많아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배합비 변경조차도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아 마음 놓고 바꾸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회사는 농가의 사양관리에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라고 정성준 사장은 조합원들로 구성된 타 TMR업체와의 차별성에 대해 강조한다.

1993년도에 현재 위치에 설립한 에스에프는 늘어나는 물량의 원활한 소화를 위해 인근으로 부지를 넓혀서 최신식 설비를 갖추고 HACCP인증도 받아 다시한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천안, 서산 터줏대감인 에스에프(주)의 다시한번의 힘찬 재도약을 기대해 본다.<吉> 